

<書評>

졸민 著 「管理經濟學」

“Managerial Economics” by Joel Dean

姜 然 圭

우리나라의 經濟人이나 政府官吏들이 個別企業의 經營經濟性增進이란 것을 現實的인 重要 題一마로서 論議하기 始作한것은 僅僅 二年前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方面에 對한 學者와 經營擔當者의 諸研究는 제법 組織的인 모습을 띠기 始作하였고 또한 政府當局으로서도 經濟政策의 一環으로서 個別企業의 經營合理化問題를 重要視하는 傾向을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從來의 經濟政策은 產業構造的 後進性的 克服을 最高目標로 하여 主로 現代의 生産施設의 導入에 依한 經濟生産力의 擴充擴大 再生産의 促進이란 것에 그 重點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經濟的繁榮을 가지 오는 또 하나의 基礎條件으로서의 單位經營體의 生産性問題는 現實的인 政策領域 으로서는 거진 度外視되어 왔다. 그런즉 生産力擴充이란 意味에서의 經濟復興이 未完成이나마 一應 그 形態를 갖추게 된 現在 既存生産施設의 合理的 科學的利用에 依한 單位設備當 生産性的 極大化를 期한다는것이 經濟水準의 보다 急速한 向上을 爲하여 必然的인 課題로서 크로즈 었 되었으며 한편 이에 對한 社會的自覺의 增大는 近代의 經營管理知識의 吸收適用을 目的으로 하는 經濟學研究의 導火線의 役割을 하였다

이리하여 요즘 書店에는 經營學에 關한 여러가지 著書와 翻譯物이 氾濫하여 實로 經營學 全盛時代를 이룬感을 주고 있는데 筆者가 여기에 紹介하려는 「졸민」教授著 「管理經濟學」은 數 많은 經營學 關係文獻中에서도 群鶴一鶴的인 勞作으로 생각되며 實은 오래前부터 우리나라 經營學徒 및 經營實務者 特히 所謂 몹·메니지멘트에 屬하는 사람들에게 그 一讀을 勸하고 싶었던 冊中の 하나이다. 그것은 本書가 무엇보다도 現代의 經營管理의 科

學的研究에 있어서 새로운 領域을 開闢하여 美國經營學을 一步 前進시킨 革新的인 內容과 構想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美國의 傳統的 經營學에 있어서는 從來 經營管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主로 經營의 科學的管理에 關한 方法過程 및 組織等의 統一的研究에 置重하는 나머지 個別經營의 問題를 廣範한 市場經濟的 觀點에 서서 把握한다는 것은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았다. 그런즉 個別企業의 經營活動은 經營外的 諸條件의 制約을 받으며 이로 말미아마 經營과 市場과의 關聯에 對한 經濟學的考察이 經營管理 特히 經營政策에 高度의 科學性을 부여하는 意味에서 要請되는 바 本書는 이 方面에 있어서의 最初의 理論的組織的研究로서 先驅的 意義를 지닌다고 確言할 수 있다.

따라서 著者는 序文에서 「本書의 目的은 롭·메니지먼트에 依한 經營政策樹立에 經濟學的 分析理論을 積極적으로 利用하는 것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나아가서는 「그 科學的利用方法을 究明하는데 있다」고 指摘하였다. 그리고 過去 一部學者에 依하여 經營의 經濟學的把握이 試圖되었으나 많은 境遇 그것은 從來의 經營管理理論에 經濟學的分析理論을 다만 漠然히 追加한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基本的假定이 지나치게 單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經營과 市場과의 相關性에 對한 理論的調整이 充分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롭·메니지먼트로서는 그와같은 研究의 結果를 有效하게 利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아마 著者는 무엇보다도 먼저 經營管理政策의 問題와 經濟學的理論과를 有機적으로 統一調和시키므로써 經濟學的思考方式이 經營首腦部에 依한 政策立案等에 도움이 되겠금 만드는데 힘을 썼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著者가 計量經濟學과 最新의 市場調査에 依하여 提供되는 科學的인 計數處理方法을 廣範하게 活用한 것은 讀者의 注意할 點이다.

本書를 맨 처음에 여는 사람에게 特히 興味를 주는 것은 이 冊의 內容을 構成하는 各章의 題目이다. 곧 그것은 모다 經濟理論에 對한 廣範한 理解力 없이는 解決이 困難한 經營政策上의 主要課題로 볼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課題를 解決하는 것은 實로 現代企業의 롭·메니지먼트에 固有한 機能으로서 企業의 生存上 特別한 重要性을 가진다.

그래서 著者는 政策的觀點에서는 利潤·原價·價格決定·製品構成의 基準決定·需要 및 競爭等の 諸概念을 基本的인 것으로 생각하여 이들 諸概念에 對한 經濟學的考察을 試圖하며 한편 그 結果가 經營政策上의 目的을

爲하여 如何히 活用될 수 있는나 하는 것을 明確하게 記述한다. 그리고 前에 指摘한바와 같이 「뎐」教授의 意圖는 只今까지 經營內部에 局限되어 있던 經營管理上의 諸問題를 市場과의 直接的連關下에서 말하자면 經濟學的으로 再檢討하는데 있으므로 그의 主張이 傳統的經營學의 所說과 正面衝突하는 境遇가 많다. 例컨대 企業의 目的인 利潤概念에 關하여 從來의 發生主義會計方法에 依하여 決定되는 利益額의 眞實性을 否定하고 오히려 經濟學者의 觀點에서 본 利益이 經營政策 特히 利益管理上 더욱 큰 意義가 있다고 하는 立場을 取하여 이것을 發生主義會計에 있어서의 利益概念으로부터 區別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뎐」教授에 依하면 製品構成政策은 販賣政策 및 價格政策과 더불어 現代的市場競爭에 있어서 企業의 가장 重要한 活動側面으로 볼수 있는바 現代企業의 大部分이 여러가지 製品을 섞어서 生産販賣하고 있으며도 不拘하고 이것에 關한 經濟理論은 單一製品을 生産하고 있다는 極히 粗雜한 前提下에 展開되는데 이와 같이 해서는 製品政策의 經濟學的意義를 充分히 把握할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뎐」教授는 소위 製品戰略(Product Strategy)이라고 하는 새로운 理論體系를 들고 나와서 新製品의 追加 및 既存製品의 削除에 對하여 理論的基礎를 提供하려고 애쓴것은 製品政策에 關한 理論的發展에 있어서의 劃期的貢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著者の 行論이 傳統의 美國經營學의 그것과 顯著한 差異를 가진 點은 非單 以上の 샘플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全卷을 通하여 到處에서 內容의 漸新性和 理論의 特異性을 感得할 수 있는데 이것에 依하여 우리는 管理經濟學이 從來의 經營學研究와 區別되는 理由를 明確히 捕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留意할 것은 管理經濟學에 있어서는 現代企業의 經營管理은 經濟學에 依한 理論的 뒷받침없이 充分한 科學性을 獲得할 수 없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管理經濟學은 또한 「經營者를 爲한 經濟學」이라고 이름하여도 좋을 것이다.

끝으로 著者の 自身도 告白하고 있듯이 本書는 經濟學的據點에서 본 經營政策上의 主要問題를 網羅的으로 取扱하지는 않았다. 보다 廣範하고 徹底한 管理經濟學의 研究는 오히려 今後의 發展에 期待하여야 할것이다. 그러에도 不拘하고 內容의 革新性和 簡明流惡한 論理的構造는 本書를 世界의 名著의 地位에 미러 올렸으며 이미 오래前에 世界主要國語로 翻譯되어 廣範한 讀者層을 獲得하였다는 事實은 本書의 學問的價値의 큰것을 證明하여 남음이 있을 것이다.

(延世大講師)

彙 報

— 檀紀4290年12月22日 ~ 91年10月15日 —

韓 國 經 濟 學 會

<第六回定期總會>

檀紀4290年12月22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全國各大學代表 80餘名 參席下에 開會되어 高承濟會長代理로 부터 崔虎鎮會長의 渡歐 및 經濟理論, 政策, 史學會가 새로 發足되었다는 報告가 있었고 이어 諸會員들은 韓國經濟發展을 爲하여 努力하여야 한다는 要旨의 人事가 있었다. 그리고 李昌烈監查의 決算報告 및 諸會員間의 學界發展을 爲한 諸般討議가 있었다. 끝으로 創立五周年記念特輯「經濟學研究」第五輯의 配付로서 第六回定期總會를 끝 마추었다.

<崔虎鎮會長유럽

으로부터歸國>

西獨經濟學會長의 個人招請에 依한 西獨을 비롯한 유럽諸國經濟發展狀態의 視察을 마치고 1月25日 趙東弼, 尹炳旭兩教授와 더불어 無事히 歸國하였다.

<第一回役員會>

5月19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今年度に 들어와 처음으로 役員會가 開催되었다. 會長으로부터 歐羅巴視察中

高教授會長代理執務에 對한 感謝의 뜻을 表示하고 第六回定期總會以後「經濟學研究」第五輯의 海外發送등의 諸般報告가 있었다. 이어 經濟學會의 今年事業計劃에 對한 論議가 있었으며 끝으로 第二回 全國大學院學生 經濟學研究發表大會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를 보았다.

記

一, 題 目

1. 韓國經濟에 있어서 經營合理化問題(經營學專攻)
2. 資產再評價問題(商學專攻)
3. 資本蓄積問題(經濟學專攻)
4. 外資導入問題(共同)

(但 農經, 水經專攻은 恣意로 選擇)

二, 日 時

檀紀4291年11月頃(日字 追後發表)

三, 場 所 未定(追後發表)

四, 參 加

1. 發表者...大學院·經濟學科·商學科·農經學科에서 科當 一名씩
2. 質疑者...大學院學生全員

五, 發表時間 및 質疑時間

1. 發表時間...30分間
2. 質疑時間...20分間

※發表質疑要領...發表者 登壇 30分間

發表하고 繼續 20分間 質疑者로부터 質疑을 받음

六, 申請마감

10月15日 까지 (申請時 大學院長의 推薦書를 同封 提出한다)

七, 原稿提出

申請時 發表內容을 原稿(200字) 15枚 內로 要約하여 提出한다.

八, 申請 處

서울特別市永登浦區黑石洞221番地
韓國經濟學會

九, 密 査

各 大學院講義擔當教授

一〇, 施 賞

研究激勵賞을 授與함

一一, 後 援

追後 發表함

<第二回役員會>

10月19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西獨副首相 兼 經濟相 Ludwig Erhart 博士가 來韓하게 되어 우리 學會主催로 講演會를 開催하게 된 바 이에 對한 進行및 參席者範圍를 討議하였다.

<西獨副首相兼經濟相

Ludwig Erhart博士講演會>

第一次大戰後 西獨 經濟復興發展에 큰 役割을 하였던 西獨副首相 兼 經濟相 Ludwig Erhart博士의 來韓을 契機로 하여 本學會에서는 10月24日 半島호텔 Dynasty Hall에서 講演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學界를 비롯한 金融機關

經濟部處의 實務者등 100餘名の 參席下에 講演은 進行되었으며 끝으로 崔虎鎮會長으로부터의 紹介 및 記念品贈呈이 있었다.

<第三回役員會>

11月4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었으며, 本學會 定期刊行物인 「經濟學研究」第六輯 印刷 및 原稿에 對한 討議가 있었고 第二回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에 對한 施賞 後援, 場所에 對한 討議가 있었다.

<第四回役員會>

11月4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었으며, 會長으로부터 15, 16兩日에 있을 第二回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의 準備過程에 對한 報告가 있었고 進行에 對한 討議가 있었다.

<第二回全國大學院學生 經濟學研究發表大會>

11月 15, 16兩日에 걸쳐 서울中央放送局 K.B.S. Hall에서 淸州, 大邱, 全州 등의 地方各地로부터의 來賓, 大學院學生을 비롯하여 300餘名の 經濟學徒가 參席한 가운데 崔虎鎮會長의 人事 白昌錫教授의 審查에 對한 注意로 시작되어 黃炳峻教授의 司會에 따라 研究發表가 連二日間 繼續되었으며, 끝으로 高承濟, 金俊輔, 崔朱喆諸教授의 審査意見이 있었다. 그리고 本大會에서 優秀發表者 및 優秀質疑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施賞이 있었다.

<발표상>

①最優秀發表賞

清州大學大學院

李昌熙 韓國銀行總裁賞

中央大學校大學院

嚴琦燮 韓國產業銀行總裁賞

②優秀發表賞

延世大學校大學院

라민수 民議院商工委員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朴贊葵 民議院農林委員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裴文漢 民議院復興委員長賞

全北大學校大學院

申壽撤 韓國貯蓄銀行長賞

高麗大學校大學院

申桂容 朝興銀行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鄭琦洙 農業銀行總裁賞

서울大學校大學院

金塚謙 民議院豫決委員長賞

<질의상>

①最優秀質疑賞

高麗大學校大學院

嚴廷振 韓國經濟學會長賞

②優秀質疑賞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南玲珍 復興部長官賞

中央大學校大學院

金元卿 財務部長官賞

高麗大學校大學院

徐基遠 韓國無盡株式會社社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金元洙 大韓財務協會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李德永 商工部長官賞

高麗大學校大學院

高淑煥 民議院財經委員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朴贊應 大韓商工會議所會長賞

全北大學校大學院

延世大學校大學院

吳昌俊 高麗大學校總長賞

朝鮮大學校大學院

金基日 서울大學校總長賞

高麗大學校大學院

崔桂漢 中央大學校總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權寧河 韓國日報社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金達鉉 朝鮮日報社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韓明鉉 京鄉新聞社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張東燮 서울신문社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李弼佑 安國火災保險社長賞